

# 경북도, NEAR 통해 지방의회 협력체계 첫 구축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동북아 지방의회협력 국제포럼  
경주시 다자와 양자 교류 확대  
기후·AI 대응 협력 기반 마련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사무국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후원한 '2025 NEAR 동북아 지방의회협력 국제포럼'이 9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6개국 21개 지방의회 대표단과 관계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의회가 NEAR 협력체계에 공식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는 환담을 시작으로 개회식, 지방의회 세션, 1:1 교류, 문화탐방, 환영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의회 대표단과 주한 외교관을 만나 상호 관심사와 협력 방향을 논의하며 "NEAR 협력체계를 통해 지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의회 간 교류와 이해가



'2025 동북아 지방의회협력 국제포럼'이 9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더욱 두터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환영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주한 러시아대사, 주부산 중국·카자흐스탄 총영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철우 지사는 환영사에서 "NEAR는 지난 29년 동안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며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국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박성만 의장은 "성장 잠재력과 도전이 공존하는 동북아에서 경험 공유와 공존 모

색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외교 대표들도 "NEAR는 지난 29년간 지역 간 신뢰를 쌓고 동북아 발전을 이끌어 온 굳건한 협력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의회 세션에서는 각국 대표단이

지방의회의 구성과 주요 활동을 소개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NEAR 사무국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 간 다자교류와 함께 총 7 건의 양자 교류도 주선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NEAR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는 NEAR가 미래 동북아 협력의 중심축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은 1996년 창설된 동북아 최대 지방정부 협력 기구로, 현재 9개국 91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초대 의장 단체로 NEAR 설립을 주도했으며, 2005년 포항에 상설사무국을 유치해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해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 "일하는 방식·소통 방식 혁신" 선언

박남식 신임 포항제철소장 취임  
실행형 안전관리 구축에 역량 집중

박남식 제26대 포항제철소장이 공식 취임했다.

박남식 신임 포항제철소장은 9일 포스코 본사 대회의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포항제철소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영광이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안전, 소통, 혁신, 상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제철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 실행 중심의 실질적 안전관리 체제 내재화 ▲ 일하는 방식과 소통 방식의 대전환 ▲ 중대재해 제로화 및 설비 강건회를 통한 지속 가능한 제철소 구현 ▲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박 소장은 무엇보다 제철소의 일상 속에서 안전이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며 실행 중심의 안전관리 체제 확립을



9일 포스코 본사 대회의장에서 박남식 제26대 포항제철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강조했다. 또한 박 소장은 "지역사회에 안정적 성장을 보답하고,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소장은 1992년 포스코에 입사해 포항제철소 공정품질서비스실, 수주공정물류실, 글로벌마케팅조정실 그룹장 등을 거쳤으며 광양제철소 생 산기술부 부장, 판매생산조정실 실장, 포항제철소 공정품질담당 부소장을 역임했다.

박 소장은 무엇보다 제철소의 일상 속에서 안전이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며 실행 중심의 안전관리 체제 확립을

## 김해-中 라이시, 경제·산업 협력 확대 논의

제조·투자 분야 교류 확대 방안 협의

김해시는 중국 산동성 라이시시 대표단이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김해를 찾아 경제·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쉬동후이 라이시시 부시장을 포함한 5명의 방문단은 8일 홍태용 김해시장을 만나 양 도시 간 경제·산업 분야의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이어 9일에는 김해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유니크의 생산 시설을 견학하며 유니크의 중국 청도공장 내 생산라인 신설 가능성을 논의했다.

라이시시는 산동성 칭다오시 산하 현급 도시로 면적 1522㎢에 72만 명이 거주한다. 산동반도 중부 교통 요충지

에 있는 개방 도시로 해외 투자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농업 및 관광업도 발달해 김해와 비슷한 균형 발전 모델을 보이고 있다.

양 도시는 1997년 10월 우호 협정 체결 이후 문화·행정·경제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도 2023년 라이시 시장, 2024년 라이시 부시장이 김해를 차례로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신업 경쟁력을 갖춘 라이시시와의 이번 교류로 협력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국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 울릉군, 자체 생산 홍해삼 15만 마리 방류

자연산 채란·부화로 고생존 종자화

울릉군은 지난주 하반기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의 일환으로 태하·학포 어촌계 마을어장에 홍해삼을 방류한 데 이어, 9일 남양어촌계 마을어장에 자체 생산한 어린 홍해삼 약 15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된 홍해삼은 올해 초 울릉도 연안에서 채집한 자연산 홍해삼으로부터 채란·부화해 울릉군 수산종자배양장에서 약 7개월간 성장시킨 체 중 1.0~7.0g의 건강한 종자로, 수산물 전염병 검사도 통과해 울릉도 해양환경에서 높은 생존율이 기대되고 있다.

울릉군은 이와 함께 수심 30m 이하에 서식해 양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불볼락(일명 '메비리')을 올해 전국 최초로 1만 마리 양식하는 데 성공했으며, 향후 생산량 확대를 위한 연구도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마을어장에 자체 생산한 어린 홍해삼을 방류했다.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울릉군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력해 동해안 해삼양식 육성사업,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적지 조사, 인공구조물 설치, 해중립 조성, 해양환경 개선 및 모니터링 등 다양한 서식지 조성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울릉(경북)=박병률 기자 pbr34@

## 전남,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여수' 선정

민간 8000억 포함 총 1조 규모 추진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서 여수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월 서면평가, 현장평가, 11월 평가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은 8000억 원 이상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재정사업비 2000억 원을 더해 총 1조 원 이상 규모로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

하고, 국가 경쟁력을 갖춘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 7월에 2개소를 선정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1개소를 선정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무술목, 경도, 돌산우두,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 100만 평에 총 1조 980억 원(민간 8980억 원·국비 1000억 원·지방비 1000억 원)을 투입해 아쿠아마린파크, 플로팅 웨일스파크, 복합크루즈 환승센터, 스마트해양레저지원센터, 호텔·콘도 등 관광형 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공모에 참여했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은 8000억 원 이상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재정사업비 2000억 원을 더해 총 1조 원 이상 규모로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

/전남=양희성 기자 ysteven@

## ▶ 지역 이모저모

### 경남도

####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3곳 선정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서 통영시, 밀양시, 하동군 등 3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7개소 중 경남이 3개소로 최다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3개 지역은 국비 20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3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통영시는 '음악이 흐르는 도천, 마을이야기에 윤이상을 입히다'를 주제로 도천동 일원에 지능형 기둥을 설치하고 IoT 생활 안전 시스템을 도입한다. 주요 보행로에는 폭염과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스마트 안개 분사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울산시

#### '주거특화형 청년지원센터' 개소

울산시는 전국 최초 '주거특화형 청년지원센터' 개소식을 지난 9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권 주거복지지사 1층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는 청년들의 주거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재단이 협력해 조성한 민관 협력형 공간이다.

울산 달동에 있는 울산권 주거복지지사 내 유휴공간(43㎡)을 활용해 소통·휴게 공간, 상담실, 공유 주방, 소규모 원격근무 공간 등을 마련했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 군산시

####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장 시동

군산시가 물놀이·레저 전문기업㈜조이와 군산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관리위탁 협약을 공식 체결하면서 오는 2026년 6월 정식 개장의 시작을 알렸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조이는 내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6월 정식 개장, 향후 3년간 복합단지를 본격적으로 관리·운영하게 된다.

시와 ㈜조이는 지난 7월 10일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총 15차례의 협상을 거치며 위탁 범위와 운영 방식, 서비스 품질 기준은 물론 안전관리 체계 구축, 청결 유지 방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핵심 사항 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약을 최종 확정했다.

/군산(전북)=정훈 기자 taiji1819@

### 영양군

#### 내년 국도비 1529억 확보

영양군은 국회정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며 2026년도 역대최대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확보된 예산은 국비 1,121억 원, 도비 408억 원 규모로 총 1529억 원 규모로 2025년 1413억 원 대비 116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영양군은 상하반기애 걸쳐 국도비 확보 고회를 개최하고 임종득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부부처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였다.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62억, ▲동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49억, ▲지방소멸기금 120억 등의 국도비를 확보하였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